朝鮮日報
發行所 서울市太平路 朝鮮日報社

十八個國外相도參席
國聯總會의前途樂觀
七十日間會期에 七十三議題

UN總會議長에 로比代表確實視

歸屬財產處理法
急速通過를再强調

◇解放五周年을맞이한佛蘭西◇

北大條約으로
減激性能可의爭戰

秋穀買上案難產
補償物資難으로再檢討

蘇系五國 UN加入否決

反共防壘된馬來
巧妙한英의極東政策

日領事館設置
近間에實現될豫定

英政府는 中共承認支持

日、歐經濟結付
三外相對日政策檢討

美、英、加財政會議의意義와前途
(中) 高承濟

二百四十六億
政府追加豫算決定

今年度生產增產

金屬價引上難航

民强解散直面
社會黨等의 의覺로

趙素昂氏 副議長을辭退

對유援助合意
美英佛外相會議서

原子力共管 英美加討議

沈滯對策

希軍·알國에進擊?

希알衝突?! 蘇態度注目

去來停止

人·國·春

文教部正式檢定畢
우리나라생활 (역사부분) 값360圓
이웃나라생활 (역사부분) 값300圓
먼나라생활 (역사부분) 값370圓
發賣開始
發行處 金龍圖書株式會社
總販賣 金龍圖書都賣部
電光1099·2566 振替서울1034

學用品 都賣 德文商社

학생중모
국어과 일반 아간부 악과생
4282년 9월 30일까지
10월 1일…2일
세종중등국어교사양성소

特急寫眞撮影 證明用 受驗用 大韓寫眞館

創刊3週年記念特輯號 月刊 法政 販賣中 값200圓 우65圓 法政社

本紙購讀請求는 大昌洋行 電本(2)四九二六

化粧品

急讓渡

秋期國樂傑作鑑賞大會
阿娘哀話 3막
青실紅실 1막
國樂院藝術家總出動!!
滿都의人氣集中!!
今十八日(日) 無違開場
中央劇場

一般家庭에서 使用하지 않으시는 不用品을 委託賣買합니다
和信百貨店 委託品部 (五六一〇)

朱肉 國產最高品 永久不變色

學生募集 青丘中學

整備대시─所有者에게告함

물가미

延禧洞等 災民住宅도 百年河淸格
九月에된다든것이 敷地도未定
遲遲不振한서울市政

대한민국정부수립이래 일년여 수도의살림살이를 도맡아보고있는 서울특별시의 면모는 무서웁게 해마다 전체적으로보면 예산면에서나 [illegible]

腦炎終熄不遠
李保健次官談

十七일 이갑수(李甲秀) 보건차관은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뇌염에 관한 다음과같은 기자단의 질문에 다음과같이 대답하였다

警察敎育刷新
治安局長談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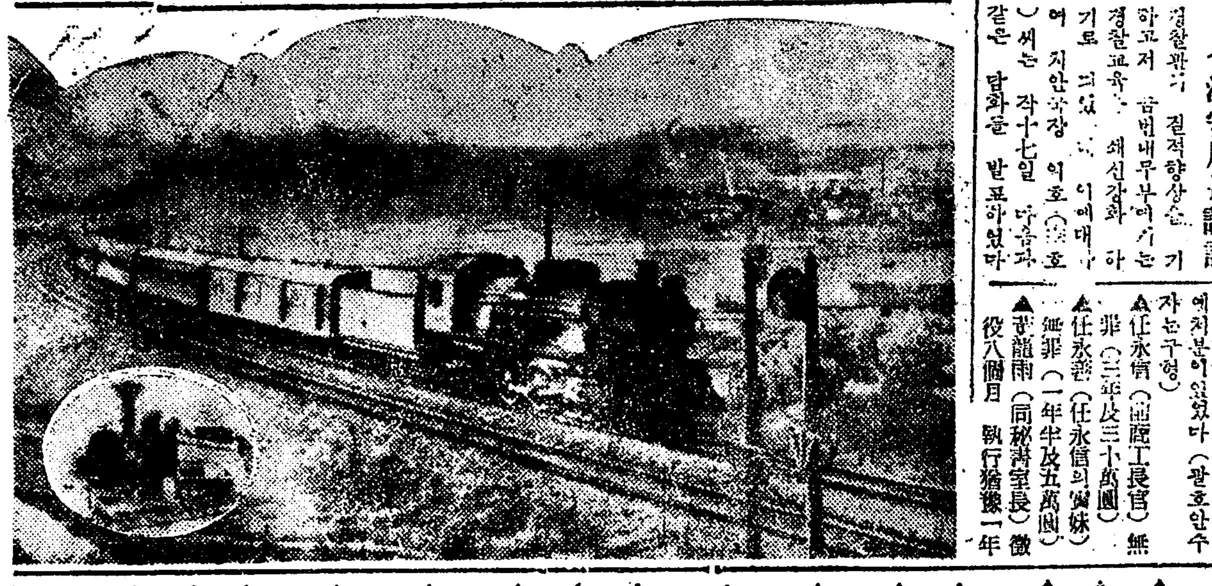
光州各學校等 腦炎으로休學

越南軍人講演大會
十八日市公館에서

市內發生은 16日에25名

鐵道創設50周年맞아
行事운행으로多彩 交通部서

지금으로부터 五十년전 인천 노량진간(仁川 鷺梁津間)의 철도가 개통이래로 발달을 거듭하여 온 우리나라의 철도도 五十년사를 맞이하게되었다 [illegible]



商工部瀆職事件言渡
任永信氏엔無罪
擔當李檢事即時로控訴

二億餘株植苗
지난봄의植木成果

去益尤甚한南勞系列
第二叛亂을劃策
仁川水上署서一黨打盡

罷業까지計劃
SK隊서울總司令等檢擧

四囚는嚴重處斷
脫獄事件에軍警布告

家門의榮光
子息의戰死는

時局講演會盛況

家畜病院을設置

達速되는復活
于先市內에만實施

憲兵上候補生 23日卒業式거行

동요
"발자욱"
이 혜 선

모래 모래 금모래
가루 금 모래
보름 달이 비칠 때
하얀 은 모래

× × ×

은 모래 위 아가같은
고운 발자욱
오목 오목 다섯개
꽃 잎 다섯잎

어린이

요즈음 유행되고 있는 뇌염이란 병은 전염되는 것입으로 주의하면 아무일없이 피할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전염되는 것임으로 병자가 난 곳은 더욱 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밤에 나가 다니지 말것입니다. 밤에 나다니면 이 병을 전염시키는 모기에게 물릴 염려가 있읍니다. 물론 너무 마음이나 마참가지로 위생에 주의해서 감기같은 것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원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전염병도 침범 못합니다. 따라서 집주위에 있는 불결물을 치워 버리고 소독을 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뇌염 때문에 학교에 안가고 집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전히 복습을 하고 어머니 말씀 잘듣고 저녁 때 밖에 나가는 일은 없겠지요?

학은 옛날 아주 옛날부터 하늘로 날아다녔읍니다. 그 학을 보고 사람들도 하늘이 그리워 졌읍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생겼읍니다.

그러나 푸른 하늘을 아름답게 날으는 점은 학의 날개만은 흉내 낼수 없었읍니다.

가는 하늘에 활작 편 학의 흰 것은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을 나려다 보고 자랑스럽게 감돌고 있읍니다.

신선께 받았다는 새빨간 모자는 햇볕에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群像
第四章(十八)
朴泰遠 作 / 金未溟 畵 (86)